

조선대, 감정평가사 최종합격자 2명 배출

✎ 이원지 기자 | ⌚ 승인 2021.01.11 17:21

기계공학과 3학년 신동근씨, 경영학부 졸업생 정선주씨



조선대 전경 (사진=조선대 제공)

[한국대학신문 이원지 기자] 조선대학교(총장 민영돈)는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제31회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2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11일 밝혔다.

합격의 주인공은 신동근씨(기계공학과 3학년)와 정선주씨(경영학부 졸업생)다.

감정평가사는 토지나 건물, 등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직업이다. 의사,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8대 전문직으로 꼽힌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법인, 은행, 공공기관 등에 소속되어 현장조사 등을 직접 수행하며 자산의 가치를 산출한다.

제31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는 응시자 중 약 23%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2차 시험에서는 전국적으로 184명이 최종 합격해 약 1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감정평가사 시험은 경제학, 부동산학, 회계학, 민법까지 다방면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난이도가 높은 자격시험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20대 초반 진로를 고민하다가 감정평가사라는 전문직을 알게 되어 시험을 준비하게 됐다”면서 “시험 과목이 많아 학원을 다니며 하루 10시간 넘게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을 졸업하고 평가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직무를 수행해 인정받는 전문가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원지기자 wonji82@unn.net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선대, 55회 공인회계사 합격자 2명 배출



조선대학교는 지난 8월 진행된 제5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졸업생 박선후(사진), 양지선씨가 최종 합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인회계사 시험에는 3천453명이 응시했으며 이중 1천110명이 합격했다.

조선대는 법조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등 다양한 전문직을 지망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다.

경상대학 고시반인 '무진관'은 학생들에게 독서실과 같은 개인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해당 시험에 대한 교재와 인터넷 강의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 합격생인 양씨도 무진관 고시반에 입반해 도움을 받았다.

법사회대학 고시원인 '황금추관'은 황금추 동광건설 회장이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5년 16억원을 들여 건립해 조선대에 기증했다.

박씨는 "황금추관에 입실해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공부한 점이 합격에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민영돈 총장은 "앞으로 학생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전문분야에 전력을 다해 도전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